

# 일본의 농산물 시장 분석

## 1. 최근 업계 동향

### 1) TPP교섭 참여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 예상

-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교섭 참여를 선언한 이후 참가국들과의 가입 작업을 본격화시키면서 농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TPP협정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위해 즉시 관세의 완전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와 체결한 경제연계협정에서 약94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한 적이 없음
  - 또한 그 중에서 쌀과 보리, 유제품 등 약400개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 삭감과 재협상 등 관세철폐 이외의 대응도 없었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TPP협정은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관세철폐를 해야 함
-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수산물 관세철폐에 따라 저렴한 외국산이 유입 되면 약3조 엔의 농림수산물의 생산 감소가 예상됨
  -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쌀이 1조 엔으로 가장 많고, 소·돼지고기와 유제품을 합한 농산물만으로도 2조 6,600억 엔에 달해, 생산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이 예상치는 품목별로 외국산과의 경합에 의한 국내산 감소액을 산출한 것인데, 설탕, 전분원료작물, 가공용 토마토는 전량 외국산으로 교체되는 등 품질 측면에서 외국산과의 차별화가 어려운 작물 위주로 국내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일본정부는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감미(甘味)자원 작물을 중요 5 품종으로 설정하고 관세철폐 예외취급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또한 더불어서 농지집약과 농가의 대규모화를 통해 생산비용 삭감과 경영체력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농산물 수출확대 방침도 추진할 계획임

〈표1〉 관세철폐에 따른 농림수산물 생산 감소액

(억엔)			생산감소액
농수산물 합계			29,600
	농산물		26,600
		쌀	10,100
		소·돼지고기	8,200
		기타	8,300
	임산물		490
	수산물		2,510

자료: 日本総研(2013), ‘目標を上回る農産物輸出の実現に向けて’, Research Focus

- 수출확대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물 수출액을 2020년까지 1조 엔 규모로 확대할 목표를 세워놓고 있음
- 그러나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생산 감소(약 3조 엔)를 만회하기에 불충분함
  - 2012년 현재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4,497억 엔이므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 수출액은 5,653억 엔이며, 이는 생산 감소액의 19% 정도의 규모에 불과함

〈표2〉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목표

(억엔)		2012년	2020년 목표	증가액	
농림수산물		4,497	10,150	5,653	
	수산물	1,698	3,500	1,802	
	가공식품	1,252	5,000	3,748	
	농산물		394	1,400	1,006
		쌀·쌀가공식품	130	600	470
		화훼	83	150	67
		청과물	80	250	170
		쇠고기	51	250	199
		차	51	150	99
		기타 농산물	1,030	-	-
임산물	123	250	127		

자료: 日本総研(2013), ‘目標を上回る農産物輸出の実現に向けて’, Research Focus

-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생산 감소액과 수출증가액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 목표달성에 필요한 수출증가액을 보면 각각 1,802억 엔, 1,006억 엔임
  -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 감소액과의 비교에서는 수산물의 수출증가액이 생산 감소액의 72%정도에 달하는 반면, 농산물의 증가액은 3.8%정도에 머물러 있음

- 결론적으로 생산 감소액을 채우기 위한 농산물의 수출확대 목표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음

□ 또한 수출 목표액의 절반정도를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임

- 수출목표 달성까지의 증가액은 3,748억 엔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함
- 수출증가액이 직접 국내의 농업생산액에 반영되는 쌀과 채소 등과 달리, 가공식품에는 수입 원재료가 대량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확대에 따른 국내생산으로의 과급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표3〉 농산물 수출액 상위 20개국(2012년 기준)

순위	상위 20개국	아시아 국가	100만 엔	TPP참여국	100만 엔
1	대만	대만	48,074		
2	홍콩	홍콩	45,754		
3	미국			미국	43,014
4	한국	한국	24,283		
5	중국	중국	19,466		
6	싱가포르	싱가포르	11,589	싱가포르	11,589
7	태국	태국	11,109		
8	베트남	베트남	9,251	베트남	9,251
9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5,162
10	독일				
11	네덜란드				
12	캐나다			캐나다	3,480
13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3,450	말레이시아	3,450
14	영국				
15	프랑스				
16	UAE				
1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447		
18	필리핀	필리핀	2,356		
19	러시아				
20	캄보디아	캄보디아	1,859		
		아시아 국가 합계	179,638	TPP참여국 합계	75,947
상위 20개국 합계		249,109			
농산물 합계		268,027			

자료: 日本総研(2013), ‘目標を上回る農産物輸出の実現に向けて’, Research Focus

- 이렇듯 관세철폐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감소 분량을 일정 수준 커버하기 위해서는 목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수출증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농산물의 주요 수출지역인 아시아 시장과 TPP참가에 따른 관세철폐 이익이 기대되는 TPP참가국 시장의 수요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함

〈표4〉 일본 TPP참여에 따른 항목별 생산 감소율 및 감소액 추정치

품목명	생산량 감소율(%)	생산 감소액(억 엔)
쌀	32	1조100
밀가루	99	770
보리	79	230
설탕	100	1500
전분	100	220
우유 및 유제품	45	2900
소고기	69	3600
돼지고기	70	4600
강낭콩	23	30
팥	71	150
땅콩	40	120
곤약 감자	—	—
차	—	—
가공용 토마토	100	270
감귤류	8	60
사과	8	40
파인애플	80	10
닭고기	20	990
계란	17	1100
농산물 합계		2조6600
임수산물 합계		3000
농림수산물 총합계		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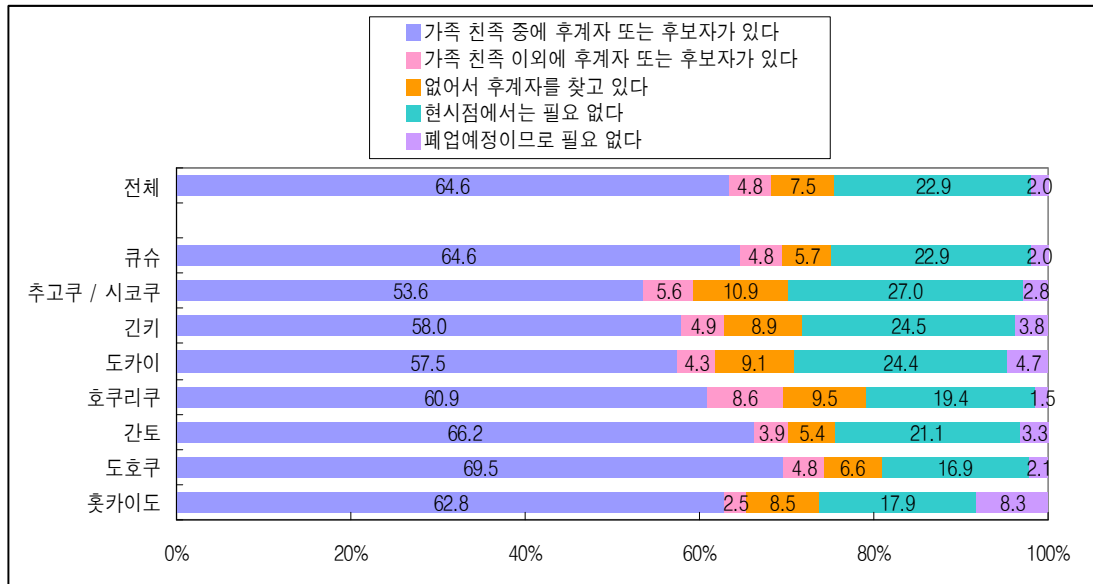
자료: 農林水産省홈페이지

## 2) 농업 후계자 확보 현황

- 일본 농업인에게 후계자 확보와 후계자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친족이어야 하는 점과 더불어 농업에 대한 의욕과 경영관리능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약60%의 농업경영자가 이미 가족·친족 중에서 후계자 또는 후보자가 있다고 대답했음
  - 구체적으로 후계자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친족 중에 후계자 또는 후보자가 있다’(63.6%)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친족 이외에 후계자 또는 후보자 있다’(4.3%)를 합치면 현 시점에서 후계자 또는 후보자가 있는 비중은 67.9%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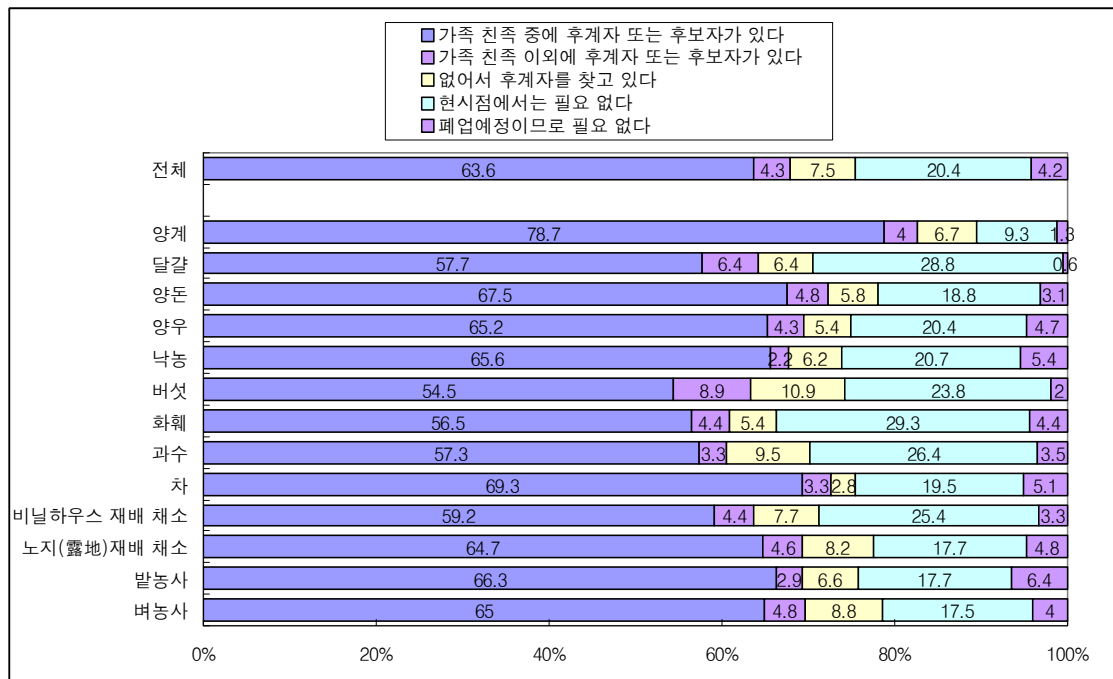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후계자 또는 후보자가 있는 비중은 도호쿠(74.3%)가 가장 높았으며, 추고쿠·시코쿠(59.2%)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1〉 후계자 유무(지역별)



자료:日本政策金融公庫ニュースリリース, ‘後継者選びは「農業への意識」「経営管理能力」重視’, (2013)3월21일

〈그림2〉 후계자 유무(업종별)



자료:日本政策金融公庫ニュースリリース, ‘後継者選びは「農業への意識」「経営管理能力」重視’, (2013)3월21일

- 후계자 유무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후계자가 있다는 비중은 양계(82.7%)가 가장 높고 과수(60.6%)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한편 ‘후계자 없어서 찾고 있다’는 비중은 지역별로는 추고쿠·시고쿠(10.9%), 업종별로는 버섯(10.9%)이 10%를 넘고 있음

〈표5〉 후계자 선정 시 중시하는 것(지역별, %)

지역	가족·친족	지역주민	농업기술인	경영관리능력	인품	농업에 대한 열의와 의욕
전체	59.4	3.1	12.1	34.5	13.5	57.1
홋카이도	57.7	1.4	13.3	36.3	11.9	60.9
도호쿠	63.3	4.2	11.8	31.6	13.5	54.2
간토	66.2	2.1	9.4	31.0	13.0	54.4
호쿠리쿠	51.9	10.9	9.9	34.3	19.6	59.9
도카이	56.4	1.8	10.3	32.7	15.2	56.4
긴키	53.3	5.7	16.8	27.9	13.9	64.8
추고쿠·시고쿠	54.2	2.1	13.3	40.4	16.9	55.7
큐슈	57.7	2.3	13.1	39.1	12.0	54.9

자료:日本政策金融公庫ニュースリリース, ‘後継者選びは「農業への意識」「経営管理能力」重視’, (2013)3月21日

- 후계자·후보자가 있거나 또는 찾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에게 후계자를 선정할 때 중시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족·친족’ 여부가 59.4%, ‘농업에 대한 열의와 의욕’이 57.1%로 나타났음
- 또한 ‘경영관리능력’이라는 답변이 34.5%로 나타나 ‘농업기술력’ 12.1%를 초과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친족’이라는 답변은 간토(66.2%)가 가장 높았으며, ‘농업에 대한 열의와 의욕’이라는 대답은 긴키(10.9%)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또한 ‘지역주민’이라는 대답은 호쿠리쿠(10.9%)가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음
- 한편 업종별로 살펴보면, 달걀농장에서 ‘경영관리능력’을 후계자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버섯재배와 홋카이도 낙농 분야에서 ‘농업에 대한 열의·의욕’과 ‘경영관리능력’이 ‘가족·친족’이라는 대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해야 할 결과임
-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과수와 양계 분야에서 ‘가족·친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표6〉 후계자 선정 시 중시하는 것(업종별, %)

지역	가족·친족	지역주민	농업기술인	경영관리능력	인품	농업에 대한 열의와 의욕
전체	59.4	3.1	12.1	34.5	13.5	57.1
농산물	60.7	4.0	12.8	30.8	12.4	58.6
축산물	57.1	0.5	10.2	44.4	16.4	53.0
벼농사	61.4	6.3	12.3	29.4	12.5	57.3
밭농사	61.2	1.9	16.3	32.2	8.0	58.4
노지채소	56.7	1.3	13.1	33.2	15.9	61.4
비닐하우스채소	58.7	1.7	13.7	31.1	12.8	58.7
차	57.4	1.4	14.2	38.5	13.5	59.5
과수	64.1	2.1	10.5	30.0	12.2	59.5
화훼	63.2	1.2	8.2	33.3	14.0	57.3
버섯	42.6	2.9	14.7	48.5	16.2	57.4
낙농	57.8	0.2	10.8	40.3	15.6	55.9
양우	63.7	0.7	11.0	38.3	12.7	56.7
양돈	48.5	1.0	10.8	46.6	21.6	49.5
달걀	46.9	-	6.1	70.4	21.4	42.9
양계	68.2	1.5	7.6	43.9	13.6	47.0

자료:日本政策金融公庫ニュースリリース, ‘後継者選びは「農業への意識」「経営管理能力」重視’, (2013)3月21日

### 3) TPP에 대항하는 ‘식물공장’

- ☐ 일본의 TPP참여가 실현되면 일본 농가는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식물공장’이 그 유력한 후보로 등장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음
  - ‘식물공장’에서 재배한 농작물은 국가적 재해를 경험한 일본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이미 1990년대 초 대규모 식품업체인 큐피(Kewpie) 등이 양배추 공장을 건설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으나, 사실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2009년임
  - 당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이 농업과 제조업의 노하우를 접목시키기 위해 150억 엔의 예산을 편성하여 ‘식품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임
  - 2009년에 약50개였던 ‘식물공장’은 2011년에 약130개로 늘어났음
  - 이 무렵에 종합상사와 전기업체, 건설업체 등 농업이 본업이 아닌 기업들이 연이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음
- ☐ ‘식물공장’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은 양배추와 무싹과 같은 채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밀폐된 공간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벌레가 없어 농약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 최대 장점임

- 또한 농작물에 공급하는 영양분을 정교하게 조정함으로써 보다 맛있는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음
- ‘식물공장’ 관리를 컨설팅하고 있는 주식회사 미라이는 95%의 압도적인 생산효율(사용 원료에 대한 제품의 비율)을 실현시키고 있음
- 야외 밭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가공할 때 절반 정도를 폐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식물공장’의 효율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식물공장’은 설비투자와 전기료 등의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야외 재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으면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음

- 따라서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채소는 보통 채소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임
- 결국 앞으로 ‘식물공장’에서 생산된 야채는 외식 체인점 등의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야외에서 재배된 채소는 슈퍼마켓 등의 점포에서 판매되면서 두 제품의 시장이 명확하게 구분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직접 농업에 종사해오지 않았던 기업들도 농업관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 지난 2009년에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기 때문인데, 2009년 이후 3년 동안 새롭게 농업 시장에 진출한 기업은 이전까지 참여했던 436개 기업의 2배 이상 늘어난 1,071개를 기록했다
-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본 시장에서 토마토캐첩으로 명성이 높은 대형 식품제조업체인 가고메(KAGOME)는 계약 재배 농가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직접 소매점에 출하함으로써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는데 성공했음
- 전통적으로 감자스낵으로 유명한 가루비(Calbee)는 감자 품질을 실제 매매하는 거래 가격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계약농가와 체결하여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공급을 실현하는 한편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대형 편의점 체인을 보유한 로손은 각지의 유력한 대규모 농가 후계자를 ‘로손팜’의 대표로 계약해 농가가 과반수를 출자하는 농업생산법인을 설립,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로손이 사들여 독자 판매처인 ‘스토어 100엔’ 등에서 일반 편의점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음



## 2. 시장 상황

### 1) 농업 종사자와 경작지 감소

- 일본의 농업 종사자는 196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현상도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일본의 농업 종사자는 가장 많았던 1960년(1,175만 명)과 비교하면 약 1,000만 명이 감소한 178만 명을 기록하고 있음
  - 그중 여성은 73만 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61%에 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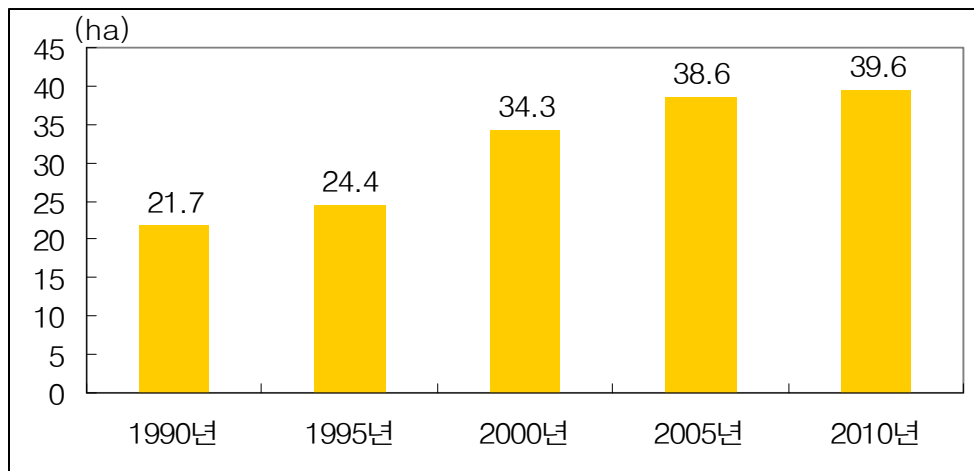
〈표7〉 농업 종사자와 평균연령 추이(단위: 만명, 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사자 수	197.0	191.4	205.1	186.2	177.8	174.2
여성	86.7	83.6	90.3	79.8	74.7	72.9
65세 이상	117.2	115.7	125.3	110.0	106.0	106.7
평균연령	65.2	65.7	66.1	65.9	66.2	---

주: 2013년은 추정치

자료: 農林水産省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그림5〉 경작지 포기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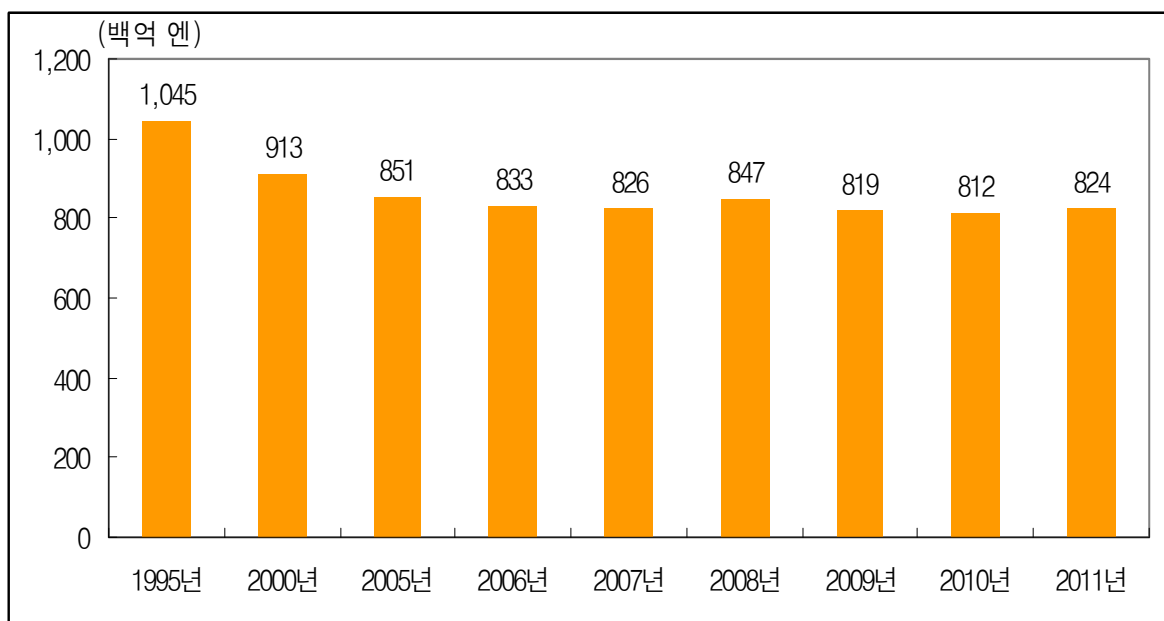
자료: 農林水産省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 한편 2012년 현재 농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66.2세이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농업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면서 경작지를 포기하는 면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 시장 규모

- 일본 농업 총생산 규모는 농업 종사자 수와 경작지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수입농산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식생활도 점차 서구화되면서 곡물 수요가 급감하고 있음
  - 1995년 10조 엔이 넘었던 농업 생산규모가 2011년 현재 8조 엔 정도로 줄어든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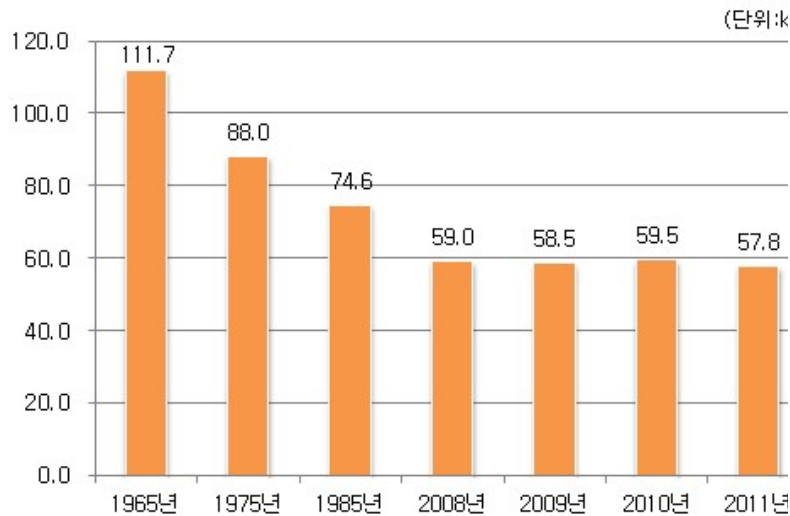
〈그림6〉 일본 농업 총생산액 추이



자료: 農林水産省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 한때 농업 분야에서 인력부족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고용창출 분야로 농업이 주목을 받기도 했음
  - 그러나 농업 종사자 1인당 월 평균소득이 15만 5,000엔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업 분야로의 노동력 유입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임
  - 결국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라는 악재와 더불어 TPP참여 이슈가 더해지면서 일본 농업은 성장을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7〉 일본 주식용 쌀 1인당(1년치) 소비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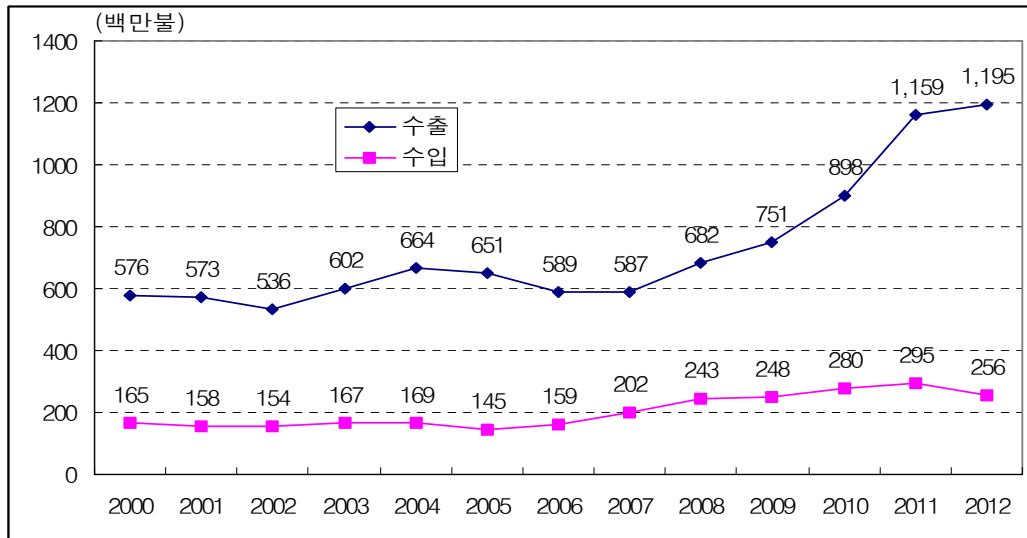
자료: 코트라 홈페이지

- 한편 일본 국내에서의 쌀 소비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쌀 수급조정을 위한 정부의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 논을 활용하여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쌀의 공급과잉을 막고 있으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쌀 생산지의 생산수량을 배정하는 제도를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대로 일본에서의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일본 전체 논의 약40%가 ‘생산조정제도’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상태임

### 3. 한·일 농산물 교역 동향

- 한국농산물의 대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량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 한국농산물의 대일 수출은 2011년에 처음으로 10억 불을 돌파하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음
  - 2007년까지 연간 5~6억불 정도에 불과하던 수출규모가 그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규모는 2007년 처음으로 2억불을 초과한 이후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12년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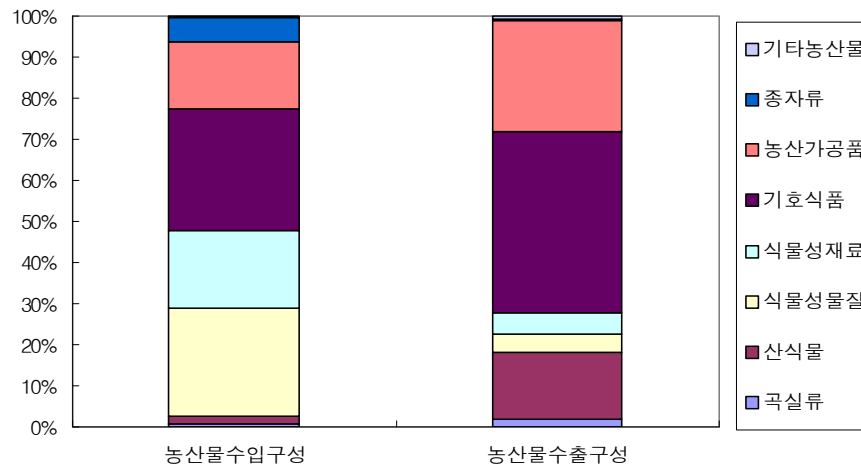
〈그림8〉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입 동향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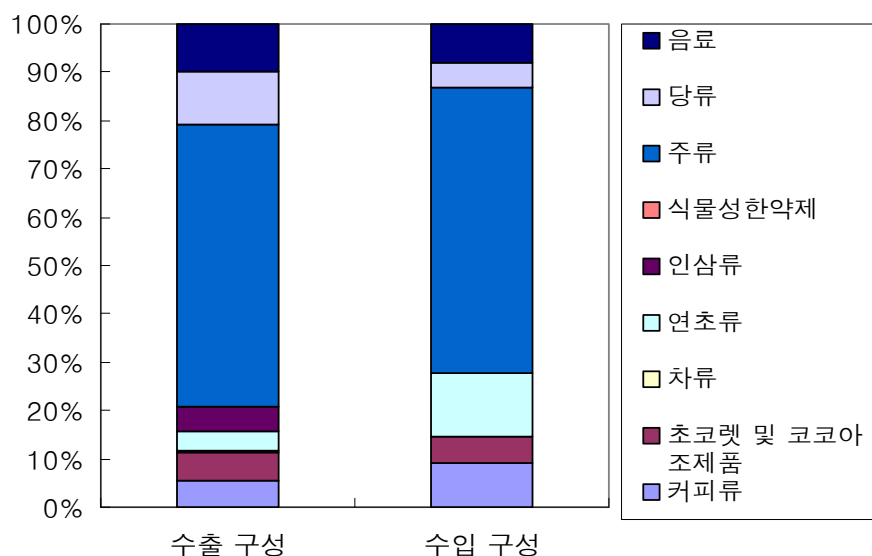
- 농산물을 제품별로 구분하여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입 모두 기호식품임
  - 2012년 실적 기준으로 한국의 대일본 전체 농산물 수출의 절반가량은 기호식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 역시 기호식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호식품 이외 수출품목 중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농산가공품이며 채소를 비롯한 산식물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수입품목 중에는 식물성재료와 식물성물질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출입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호식품을 보다 상세하게 제품별로 살펴보면, 수출입 모두에서 주류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호식품의 약 60%가 주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면 수입하는 기호식품의 약 65% 역시 주류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수치는 최근 한국의 각종 전통주와 일본의 니혼슈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보임
  - 또한 양국간 맥주 교역량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일본의 저가 맥주시장에서 한국산 맥주가 선전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에서의 일본산 맥주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그림9〉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농산물의 제품별 구성비(2012년 실적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10〉 한국의 대일본 기호식품 수출입의 제품별 구성비(2012년 실적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한국의 대일본 농림수산물식품 2012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물량기준으로는 2011년 대비 11.1% 감소하였으며, 가공식품과 수산물도 물량 기준으로 각각 12.7%와 13.6% 감소했음
  - 반면 생선식품은 물량기준으로 9.5% 증가하였고, 금액기준으로 보더라도 7.3% 증가했음

〈표8〉 한국의 대일본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2011/20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1,074,437	2,374,222	955,087	2,389,625	-11.1	0.7
생선식품	85,418	356,397	93,506	382,241	9.5	7.3
가공식품	820,583	1,024,399	716,031	1,025,673	-12.7	0.1
수산물	168,436	993,426	145,550	981,711	-13.6	-1.2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표9〉 한국의 대일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상위 20개 품목(단위: 천 달러)

순위	품목	2011년		2012년		전년대비(2011/2012)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	다랑어	22,986	177,478	24,457	238,293	6.4	34.3
2	기타 곡물발효주	177,751	137,472	186,977	144,030	5.2	4.8
3	혼합조정식료품	106,714	160,568	69,212	109,786	-35.1	-31.6
4	소주	53,737	92,641	59,943	102,199	11.6	10.3
5	기타 어류	13,702	198,603	7,537	94,113	-45.0	-52.6
6	파프리카	16,478	65,683	20,762	88,783	26.0	35.2
7	김치	22,053	86,819	21,450	84,589	-2.7	-2.6
8	기타 사탕과자	50,319	80,389	53,337	80,082	6.0	-0.4
9	김	2,075	58,047	2,701	71,562	30.2	23.3
10	뱀장어	4,823	52,167	4,480	62,115	1.2	19.1
11	전복	1,232	51,091	1,412	58,082	14.5	13.7
12	계살	4,079	45,253	4,608	49,391	13.0	9.1
13	라면	11,405	52,783	8,681	42,931	-23.9	-18.7
14	넙치	3,181	40,274	3,040	38,797	-4.4	-3.7
15	바지락	8,944	26,425	11,271	35,968	26.0	36.1
16	굴	5,128	38,016	4,475	33,617	-12.7	-11.6
17	자당(蔗糖)	38,789	41,744	33,778	33,242	-12.9	-20.4
18	막걸리	38,659	48,419	25,741	31,990	-33.4	-33.9
19	곡물반죽	38,794	33,674	36,397	31,608	-6.2	-6.1
20	백합	3,065	33,073	2,722	30,064	-11.2	-9.1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2012년 대일 수출 20위 농수산물 제품을 살펴보면, 1위는 ‘다랑어’로 나타났으며 2위는 ‘기타 곡물발효주’임
- 4위에는 2011년 대비 10.3% 증가한 소주가 차지했는데, 2위 곡물발효주와 함께 주류가 대일 수출 농수산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처럼 대일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주류는 앞서 살펴본 무역협회 자료에서도 확인한바 있는 내용임
  - 다만 같은 주류 중에서도 막걸리는 2011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33.9% 감소했으며, 순위도 5단계 내려간 18위에 올라있음
  - 한편 파프리카와 김 등이 2011년 대비 크게 수출이 늘어난 상품으로, 각각 35.2%, 23.3%(금액 기준)을 기록했음

#### 4. 시사점 및 일본시장 진출 전략

- 이미 농업종사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농업은 앞으로 만약 TPP참여가 실현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TPP에 참여하게 되면 쌀의 경우는 약90%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밀가루는 일본 국내시장 유통물량의 거의 100%가 수입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음(일본 농림수산성 추산)
  - 이뿐만이 아니라 쇠고기와 돼지고기도 전체의 70%이상이 수입품이 될 것으로 고 있으며 우유·유제품도 56%를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구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이렇게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농산물 시장에 앞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일 수출 농산물을 중심으로 일본시장을 적극 공략해볼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장점과 더불어 세계 5위의 농업 대국 일본의 시장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일본의 농업은 다양한 외국산 농산물과 품질 및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일본 농업의 핵심적인 파트너로써 한국의 농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양국간 농업협력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일본이 예정대로 TPP에 참여하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국 농산물의 일본 진출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 추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일 수출 전략 농산물을 개발하는 작업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본 농산물 시장으로 진입하는 장벽의 높이는 점차 낮아질 것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 농산물 고유의 시장특성에 맞는 전략 농산물을 개발 육성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1. 日本総研(2013), '目標を上回る農産物輸出の実現に向けて', Research Focus
2.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3.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5. KOTRA 홈페이지
6. 日本政策金融公庫ニュースリリース, '後継者選びは「農業への意識」「経営管理能力」重視', (2013)3月21日